

《龍圖公案》 속 그녀들의 파괴적 아니무스(Animus)

- 〈耳畔有聲〉과 〈手牽二子〉를 대상 작품으로 -

高淑姬*

<目 次>

1. 들어가며
2. 《용도공안》, 추리소설, 살인의 욕망
3. 〈耳畔有聲〉과 〈手牽二子〉 속 그녀들, 파괴적 아니무스를 드러내다
4. 나오며

1. 들어가며

명 萬曆 연간¹⁾을 시작으로 '公案'²⁾이라는 명칭을 내건 公案小說專集들이 대거 등장하여 일시를 풍미했다.³⁾

중국공안소설사를 들여다보면, 공안소설의 시작과 그 과정은 독립적이지 못했다. 대부분 여러 필기소설과 문언소설, 화본소설 속에 산견되어 오면서 비독립적

* 대진대학교 중국학과 강사

- 1) 명나라 신종(神宗) 주익균(朱翊鈞)이 통치할 때의 연호로, 1573-1620년이다.
- 2) 여러 문헌의 기록들과 공안소설로 분류되는 작품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안'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공안'은 說話四家 중 하나인 說公案에서 그 어휘가 출현했으며, 관부의 공문서나 판결문, 그리고 민사사건·형사사건을 포함한 소송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안'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것이 바로 '공안소설'이다.
- 3) 이들은 단편백화형식의 公案小說專集으로, 《百家公案》, 《廉明公案》, 《諸司公案》, 《新民公案》, 《海剛峰公案》, 《詳刑公案》, 《律條公案》, 《法林灼見》, 《明鏡公案》, 《詳情公案》, 《神明公案》, 《龍圖公案》등의 12종이다.

형태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공안소설이 공안 관련 이야기만을 다루는 전문적인 소설집의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하던 시기가 바로 명 만력기인 것이다. 바로 그 거대한 시작은 《百家公案》의 뭉치였고, 대미는 《龍圖公案》이 장식하게 되었다.

공안소설전집의 마무리를 장식한 《용도공안》은 여러 공안소설전집과의 중복되는 내용과 세련되지 못한 문장, 부자연스런 이야기 전개 등으로 차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용도공안》의 편집자가 기타 공안소설집에 수록된 이야기들을 취하여 창작성 결핍의 단점을 여실히 드러내고는 있으나, 공안소설전집의 집대성적 경향을 띠고 있으며, 공안소설문학의 유형을 제시했다는 측면은 흠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용도공안》은 다양한 사회범죄와 그 문제 해결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일명 중국식 추리소설이라 명명할 수 있다. 작품집에서 다루어지는 사회범죄는 다양한 인간욕망으로 인해 야기된다. 일그러진 인간의 욕망 분출이 범죄를 유발하고, 범죄사건 해결을 위해 포공이 등장하여 두 가지 역할을⁴⁾ 거뜰히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용도공안》의 전체 줄거리이다.

본고에서는 《용도공안》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작품집에 등장하는 사회 범죄 중에서 과도한 아니무스(Animus)⁵⁾적 경향을 현실화하여 살인의 욕망을 충족하는 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 내에서 자신의 확고한 지위 정립과 타자에 대한 질투로 인해 아니무스적 욕망이 파괴적이고도 잔인하게 드러난 〈耳畔有聲〉과 〈手牽二子〉를 그 주요 대상 작품으로 삼는다.

4) 포공은 사건 추리자로서의 역할과 판결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5) 심리학자인 카를 융은 남성의 심리에 있는 여성적 요소를 아니마, 여성의 심리에 있는 남성적 요소를 아니무스라고 불렀다. 이 용어는 원래 '영혼', '삶의 호흡', '움직이는 것'이라는 뜻의 라틴어이다. 남경태, 《개념어 사전》, 들녘, 2008, p. 250.

2. 《용도공안》, 추리소설, 살인의 욕망

《용도공안》은 《백가공안》⁶⁾과 더불어 송나라의 실존 인물 包拯⁷⁾을 중심인물로 설정한 중국의 대표적 공안소설이다. 《용도공안》은 일명 《包公案》이라고도 하며, 《백가공안》과 마찬가지로 사회범죄와 해결을 다룬 공안소설전집이다.

《용도공안》은 그 지은이를 알 수 없으나, 명나라 만력 연간 적어도 1592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역사 인물 포증을 중심인물로 설정하여, 그의 사건 해결과정을 통해 청관으로서 관관으로서의 면모를 제시하고, 다양한 범죄사건들을 통해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용도공안》의 체제를 살펴보면, 내용에 따라 회를 나누지 않고, 유사한 이야기를 함께 배열하여 다른 공안소설전집들이 사건의 성질에 따라 이야기를 분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다.⁸⁾ 전반부 일부 목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6) 명나라 중엽은 출판업이 성행하여 소설의 발전과 전파를 촉진하던 시기였다. 이 때 다른 소설 장르와 마찬가지로 사회 범죄와 소송을 다룬 공안소설도 그 발전 대열에 합류했다. 바로 《백가공안》은 첫 번째 공안소설전집으로서 세상에 면모를 드러냈다. 《백가공안》은 송나라 때 諫官이었고 후대에 淸官이나 판관으로 이름이 알려진 포증을 중심인물로 설정하여 다양한 사회범죄와 소송사건을 해결하는 그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
- 7) 포증에 대한 명칭은 다양하다. 包公, 包待制, 包龍圖, 包大尹, 包青天 등이 있다.
- 8) 명 만력 연간 이후 등장한 공안소설전집들은 사건 성질에 따라 고사를 분류했다.《廉明公案》의 경우, 人命類, 奸情類, 盜賊類, 爭占類, 騙害類, 威逼類, 拐帶類, 墳山類, 婚姻類, 債負類, 戶役類, 鬪毆類, 繼立類, 脫罪類, 執照類, 旌表類로 분류했다. 《諸司公案》은 人命類, 奸情類, 盜賊類, 詐偽類, 爭占類, 雪冤類로 분류했다. 《新民公案》은 欺昧, 人命, 謀害, 劫盜, 賴騙, 伸冤, 奸淫, 霸佔으로 분류했다. 《詳刑公案》은 謀害類, 奸情類, 婚姻類, 奸拐類, 威逼類, 除精類, 除害類, 竊盜類, 搶劫類, 強盜類, 奸殺類, 謀佔類, 節婦類, 烈女類, 雙孝類, 孝子類로 이루어졌다. 《律條公案》은 謀害類, 強奸類, 奸情類, 強盜類, 竊盜類, 淫僧類, 除精類, 除害類, 婚姻類, 奸殺類, 謀產類, 混爭類, 拐帶類, 節孝類, 六律總括, 五刑定律, 擬罪問答, 金針一誠賦, 執照類, 保狀類로 분류했다. 《明鏡公案》은 人命類, 索騙類, 奸情類, 盜賊類, 雪冤類, 婚姻類, 圖賴類, 理冤類, 古案類로 이루어졌으며, 《詳情公案》은 雪冤門, 奸情類, 強盜門, 搶劫類, 竊盜門, 奸拐門, 威逼門, 人命門, 索騙門, 奸殺類, 謀佔門, 節婦門, 烈女門, 雙孝門, 孝子門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이야기 阿彌陀佛講和	두 번째 이야기 觀音菩薩托夢
세 번째 이야기 嚼舌吐血	네 번째 이야기 咬舌扣喉
다섯 번째 이야기 鎖匙	여섯 번째 이야기 包袱
일곱 번째 이야기 葛葉飄來	여덟 번째 이야기 招帖收去
아홉 번째 이야기 夾底船	열 번째 이야기 接迹渡

이처럼 작품 목차를 통해, 각각의 이야기들이 對를 이루고 있으며 이야기 전개 과정도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용도공안》의 판본과 관련된 사항은 상당히 복잡한 편이다. 그러나 100편의 고사를 수록하고 있는 繁本과 62편의 고사를 수록하고 있는 簡本の 2종이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용도공안》은 기타 공안소설집과의 상호답습으로 그 문학성이 평가 절하되고 있지만, 다양한 사회범죄를 통해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 중심인물 포증이 어떤 방식으로 범죄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 사건의 추리자·해결자로서의 포공형상을 정립했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공안소설은 중국의 추리소설로 범죄와 추리의 결합체이다. 공안소설 안에는 사건 발생과 사건해결의 과정이 그려져 있는데, 사건 발생은 범죄의 서술이며 사건 해결은 추리과정(혹은 조사과정)의 진행이다. 즉 공안소설 안에는 플롯 전개상 범죄스토리와 추리스토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용도공안》도 예외는 아니다.

T.토도로프는 〈탐정소설의 유형〉에서 추리소설의 밑바닥에는 이중성이 발견되고, 이 이중성이 묘사를 이끌게 되는데, 이 소설은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두 개의 스토리, 즉 범죄스토리와 조사스토리를 포함한다고 했다. 그는 첫 번째 스토리인 범죄이야기는 두 번째 스토리가 시작되기 전에 끝나며, 두 번째 스토리인 조사스토리에서 주인공들은 행동하지 않으며 알아낼 뿐이고, 추리소설은 순수하게 기하학적인 건축물과 같은 경향이 있다고 했다.⁹⁾

9) T.토도로프지음, 신동욱 옮김, 《산문의 시학》, 문예출판사, 1992, pp. 50-51 참조.

서양의 고전 추리소설에서 작품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미있는 스토리가 아니고 범행방법에 대한 확고한 수수께끼이다. 그리고 도저히 풀리지 않는 사건의 설정과 그것이 은밀히 품고 있는 범행트릭은 추리소설만이 지니는 기본요건이다. 추리소설은 이러한 수수께끼를 중심으로 한 명의 탐정과 여러 명의 용의자, 그리고 수수께끼를 푸는 추리적 방법이 소설의 근간을 이룬다. 말하자면 추리소설의 중심에는 범행이 지닌 시공간의 미스터리가 놓여 있으며 그것을 푸는 추론적 과정(범인-용의자-탐정의 관계)이 소설의 중심서사를 이끌고 있다. 그리고 추리소설은 삼각관계를 통한 수수께끼의 논리 싸움이 범죄스토리과 조사스토리로 구성되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다.¹⁰⁾

추리소설에서 전개되는 범죄스토리는 대개의 경우 타인에 대한 살인에서부터 시작된다.

공안소설과 추리소설 속의 살인은 인간의 일그러진 '욕망'으로 야기된다.

인간의 그릇된 욕망은 사회의 기초 질서를 와해시키는 속성을 지니게 마련이다. 인간 욕망의 비뚤어진 표출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그 살인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추리소설과 공안소설의 기본 과제이며, 탐정과 판관은 그 과제수행의 주체가 된다. 중국식 추리소설인 공안소설에서 판관은 서구 추리소설 속 탐정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역할 임무를 부여받는다.¹¹⁾

다소의 상이점은 존재하나 추리소설의 기본 공식은 서구와 중국을 막론하고 일치성을 보여준다. 즉 수수께끼의 발생과 조사가 바로 그것으로, 전자는 범죄로 후자는 추리로 대치된다.

《용도공안》은 사회범죄 소설집으로, 인간사회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각양각색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은 모두 인간의 일그러진 욕망에 기인한다. 작품 속에서 전개되는 욕망은, 현실사회에서 윤리적 잣대에 따라 욕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욕망하는 욕망과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하는 욕망, 변신을 통해 원형의 사악함을 표출하는 욕망, 개인적 이기심에 기인한 배신의 욕망이다.

10) 대중문학연구회,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p. 206 참조.

11) 판관은 국가에서 임명되는 관리로, 범죄사건의 해결 뿐 아니라 행정책임과 치안책임을 맡고 있어, 서구 추리소설 속 탐정에 비해 다양한 역할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봉건유교사회라는 규범적 틀 안에서 어떤 대상을 욕망하는 인간들은 그들의 욕망분출을 위해 살인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 이러한 살인의 욕망으로 인한 범죄의 만연은 당시 사회와의 관련성을 간과할 수 없다. 명대 사회를 조명해 볼 때, 명 중기는 확실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역사시기이다. 이 시기는 150여 년의 안정기와 평화의 세월을 지내면서 경제는 나날이 안정되었다. 각종 사회문제와 모순이 발생했으나, 표면적으로 전체 사회, 특히 도시에는 번영의 국면과 부유하고 태평스런 분위기가 출현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과 도덕관념도 거대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여, 사치를 다투고 기이한 것에 현혹되며, 풍류와 방종이 대다수 사람들의 추구대상이 되었다. 이런 풍조는 명초의 순박하고 검소하며 규범을 따르고 화려함을 숭상하지 않던 풍모와는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특히 이러한 사회풍조와 도덕관념의 변화는 당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¹²⁾

3. 〈耳畔有聲〉과 〈手牽二子〉 속 그녀들, 파괴적 아니무스를 드러내다

카를 융¹³⁾의 분석 심리학 용어 중에 '아니마(Anima)'와 '아니무스(Animus)'라는 것이 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인 요소로, 본래 타고난 여성성과 여성에 대한 경험의 총체가 무의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아니마'적 경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지만, 부정적 측면에서 무기력과 자발성 상실, 감정 장애, 결단력 없는 성격을 지닐 수도 있게

12) 吳存存, 《明清社會性愛風氣》, 人民文學出版社, 2000, p. 71.

13) 카를 구스타프 융(1875-1961)은 스위스 출신의 정신분석학자로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콤플렉스 학설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정신분열증에 대한 이해와 정신치료를 시도하기도 했다. 1907년 이후로 프로이트와 공동으로 정신분석 연구를 하면서 후계자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견해차이로 5년 만에 결별하게 되었다. 결국 그는 프로이트 초기 학설인 성욕 중심설을 비판하며 무의식 세계를 중심으로 한 분석심리학을 만들어내기에 이른다.

된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인 요소로 원래적인 것과 남성경험의 총체가 무의식으로 들어간 상태라고 한다. ‘아니무스’는 역사적인 감정(역사성, 과거에 대한 추억)은 없고, 미래와 현재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치상황을 비롯한 바깥상황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용은 이러한 ‘아니무스’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차갑고 파괴적이며 타산적인 소유욕, 지배욕, 독점욕, 잔혹, 무모, 공포, 숨 막히는 침묵, 완고, 사악 등으로 나타나며,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결단성 있게 일을 처리하며 강한 생활력을 드러낸다고 보았다.¹⁴⁾ 이러한 ‘아니마’ 적이거나 ‘아니무스’ 적 경향은 모든 남녀에게 잠재되어 있는 요소로 환경과 주위 자극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표출되기 마련이다.

사회 범죄를 바탕으로 사건해결을 위한 판관의 추리가 공존하는 《용도공안》에는 범죄 주체, 혹은 범죄 대상으로 많은 여성들이 등장한다. 특히 살인의 욕망을 지닌 범죄 주체로서 등장하는 일부 여성들은 파괴적이며 잔혹한 그녀들의 ‘아니무스’를 표출하여 전통사회에서 수동적 존재로서 압박과 고통을 당해오던 여성들의 충격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그녀들의 파괴적 ‘아니무스’는 살인의 욕망을 드러내고, 그 욕망 충족을 위해 과감히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耳畔有聲〉과 〈手牽二子〉를 들 수 있다.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일부다처제가 용인되었던 봉건사회에서 한 가정내 본처와 후처, 혹은 본처와 첩의 관계망을 통해 여성의 부정적 ‘아니무스’ 경향이 표출되었다는 점이다.

두 작품에 등장하는 그녀들 柳氏와 陳氏는 파괴적 ‘아니무스’를 표출하여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처음에 그녀들은 살인욕망에 대한 완전 범죄를 꿈꾼다. 그러나 포종의 예리함과 추리적 사고로 인해 결국 좌절에 부딪치게 된다.

그녀들 柳氏, 陳氏와 마찬가지로 그들 속에 내재된 남성적인 요소를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표출한 중국 역사 속의 여성들도 다수에 달한다. 그 중 呂后, 趙飛燕, 則天武后를 대표적인 여성으로 들 수 있다.

14) 카를 구스타프 융 · A.아페편집/조성기 역, 《카를 융 기억 꿈 사상》, 김영사, 2008, p. 650.

여후는 한고조 유방의 아내로, 중국 역사에서 제일 먼저 천하의 권력을 움켜쥐었던 여성이다.

일반적으로 그녀는 잔혹하고 악독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의 차갑고 파괴적인 ‘아니무스’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戚夫人과 그녀의 아들 如意를 향해 살인의 욕망을 드러냈다. 여후는 먼저 12살 된 여의를 독이 든 술로 독살하고, 척부인을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괴롭히다가 人彘¹⁵⁾로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여후는 부정적 ‘아니무스’를 잔인하게 드러냈지만, 그녀 안의 긍정적 ‘아니무스’는 국정을 논할 때 신중하면서 결단력 있는 여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조비연은 漢 成帝의 황후이다. 그녀는 황제에 대한 지나친 독점욕으로 황후를 자리에서 몰아내고, 회임한 여러 후궁들을 독살한 여성이다. 조비연과 그녀의 여동생 조합덕은 그녀들의 사악하고 타산적인 ‘아니무스’로 인해 황제를 죽음으로 내몰고, 결국에는 서한의 멸망과 외척 王莽의 찬탈을 가속화시키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측천무후는 당 고종의 황후이며,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이다. 그녀의 강하고도 파괴적인 ‘아니무스’는 권력욕과 소유욕, 잔혹함을 드러냈다. 그녀는 황제에 대한 독점욕과 자신의 공고한 위치 확보를 위한 강한 아니무스를 드러내어 자신이 낳은 어린 딸을 목 졸라 죽이는 충격적인 행위를 단행했다.¹⁶⁾ 또한 그녀의 강한 권력욕은 아들을 죽음으로 몰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여후의 경우처럼 내재된 ‘아니무스’가 긍정적으로 강하게 작용했다. 실제로 측천무후는 자신이 여황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수많은 인재를 발탁하고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했다.

이와 같이 여성 속에 감추어진 ‘아니무스’는 한쪽 면이 편향적으로 두드러지기도 하지만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

15) 일명 사람돼지를 말한다. 여후는 척부인의 팔다리를 절단하고 눈을 파낸 후 독으로 귀를 멀게 하고 약을 먹여 병어리로 만들어 버렸다.

16) 측천무후는 영휘5년(564년)에 공주를 낳았고, 공주는 황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어느 날 황후가 공주를 보러왔다가 자리를 뜨자, 직접 딸을 목 졸라 죽이고 이불로 덮어 놓았다. 곧 고종이 오자 측천무후는 통곡했고, 이 참사를 목도한 고종은 황후의 것으로 여겼다. 결국 황후는 집요한 측천무후로 인해 폐서인 되었다.

이제 본고의 분석대상 작품으로 돌아가 보도록 한다. 본고의 대상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부정적이며 편향적이고 파괴적인 ‘아니무스’를 거침없이 표출하고 있다. 우선 〈耳畔有聲〉과 〈手牽二子〉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대상작품 1. 〈耳畔有聲〉

개봉에 秦宗祐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 程氏는 덕이 있고 온유한 성품이었다. 그들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長孺라고 지었다. 그러나 아내 정씨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진중우는 柳氏를 후처로 들였고, 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次孺라 했다. 전처 정씨와 달리 유씨는 잔인하고 사나운 성품을 지녀서 남편인 진중우 역시 그녀를 두려워했다. 당연히 유씨는 전처소생인 장유를 눈엣가시로 여겨 상당히 구박했다. 어느 날, 진중우는 집을 멀리 외출을 나가서 며칠 째 돌아오지 않았다. 이를 절호의 기회로 여긴 유씨는 장유를 남 몰래 때려죽이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급작스레 병이 나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후 시신을 묻었다. 후에 집으로 돌아온 진중우는 장유가 병으로 죽었다는 유씨의 말을 듣고 분명 비명횡사했을 것이라 여겼지만 차마 아내가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편 포공이 교외로 나가 권농(勸農)을 하려고 이 지역을 지나다가 작은 무덤 곁에서 ‘상공께 아뢰니다’라는 속삭임을 듣고 기이하게 여겨 무덤을 파게 되고 몸에 상처가 있는 어린 아이의 시체를 발견했다. 이 사건에는 억울한 일이 있을 것이라 여겨 포공은 사건을 파헤치게 되었다. 심리 결과, 유씨가 장유를 타살했음을 확신하고 그녀를 구속해서 심문하지만 처음에는 자백하려 들지 않았다. 포공이 시체의 온 몸에 남아있는 매 맞은 흔적을 증거로 대자 그녀는 자신이 장유를 죽인 사실을 실토했다.

대상작품 2. 〈手牽二子〉

馮叟의 처 陳氏는 첩과 그녀의 소생들을 없앨 기회를 엿 보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장사를 떠나며 진씨에게 자식들을 잘 돌보아 줄 것을 부탁했다. 중추절에 진씨는 달구경을 핑계로 누각에 연회를 열어 첩과 그녀의 자식들을 불러냈다. 그녀는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으니 노후에 잘 보살펴 달라는 부탁의 말을 하고 미리

독을 넣은 술을 권했다. 밤에 衛氏와 그녀의 소생들은 모두 피를 토하고 죽었으며, 진씨는 이웃에게 그들이 갑작스런 병으로 주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얼마 후, 외지에서 장사를 하는 풍수의 꿈에 첩과 자식들이 나타났다. 꿈에서 첩 위씨는 울면서 자신들이 죽었다는 사연을 말했다. 풍씨는 꿈을 꾸고 후 짐을 정리하여 돌아가려 했으나 물건이 다 팔리지 않아 돌아가지는 못하고 꿈속에서 첩이 한 말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우연히 포공이 이곳을 순회하다가 검은 기운을 보고 피곤해서 잠이 들어 꿈을 꾸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 사건의 전말을 고했다. 포공은 진씨를 잡아다 심리하고 모든 사실을 밝혀낸 후 그녀를 능지처참했다.

〈耳畔有聲〉과 〈手牽二子〉의 파괴적 ‘아니무스’를 드러내는 여성은 후처인 유씨와 본처인 진씨이다. 그녀들의 파괴적이며 냉혹한 살인 욕망은 현실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는 욕망이 발현된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부부관계는 ‘一對一’의 관계가 아니라 ‘一對多’의 관계인 ‘一夫多妻制’였다.

이러한 가족 관계에 의해 남성을 중심으로 독특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여성들은 우호적으로 공존하는 경우보다 서로 대립하고 질투하며 자신의 권익을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로 인해 어떤 경우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상대를 제거하거나 생존을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지기 마련이었다.

독특한 가족 구성원인 처와 후처, 처와 첩의 팽팽한 구도는 옛 기록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戰國時代 범가를 집대성한 사상가 韓非의 《韓非子·內儲說下篇》에 이러한 기록이 있다.

형왕의 애첩 중에 정수란 여인이 있었다. 형왕이 새로 미녀를 얻었다. 정수는 그녀에게 가르쳐 주길 “왕은 입 가리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니 왕을 가까이 모실 때 반드시 입을 가리도록 하게”라고 했다. 미녀는 황제를 가까이에서 모시게 되자 곧 입을 가렸다. 왕이 그 이유를 정수에게 물으니, “그 여인은 언젠가 왕의 체취가 싫다고 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왕이 정수와 미녀와 함께 있게 되자, 정수는 미리 왕을 모시는 시종에게 부탁하기를 “만일 왕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반드시 급히 행하라.”라고 했다. 미녀는 왕을 가까이 하게 되자 여러 차례 입을 가렸다. 왕은 화

가 나서 미녀의 코를 베라고 명령했고, 옆에 있던 시종은 칼을 뽑아 즉시 미녀의 코를 베었다.¹⁷⁾

이 문장의 뒷부분에는 형왕의 애첩 정수가 본처로 등장하는 이야기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 여성이 자신과 경쟁관계에 놓였거나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지도 모르는 미래의 적을 제거하는 내용을 통해 한비는 정치와 권력쟁탈의 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¹⁸⁾ 반드시 한비처럼 거대한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들여다 볼 필요는 없다. 정치나 권력이라는 배경을 제거하면 남는 것은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이다. 정수는 가정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새로운 경쟁자를 계책을 써서 타인의 손으로 제거하여 그녀의 ‘아니무스’ 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로 처첩간의 치열한 갈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耳畔有聲》과 《手牽二子》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耳畔有聲》에서는 본처와 후처의 일반적 갈등양상이 본처 소생의 아들과 후처의 갈등양상으로 변형되어 전개되고 있고, 《手牽二子》는 전형적인 본처와 첩 사이의 갈등이 극렬하게 펼쳐지고 있다. 두 가정 내에서 전개되는 갈등 양상은 여성의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아니무스’의 표면화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개봉부(開封府)의 성 안에 한 벼슬아치 가문이 있었다. 그 집의 주인은 성이 진씨이고 이름이 종우로, 형제 중에서 향렬이 일곱 번째였다. 집안이 부유한 편이며, 성 동쪽에 사는 정미의 딸을 아내로 얻었다. 정씨는 덕이 있고 온유한 성품이었으며, 현명하게 집안을 꾸려나갔다. 그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장유라고 지었다. 그러나 십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정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종우의 슬픔은 상당히 컸다. …… 다음 해, 종우는 유씨를 후처로 들였다. 그녀 역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차유라고 했다. 유씨는 본래 보잘 것 없는 집안 출신으로, 성품이 모질고 사나워서 남편인 종우는 그녀를 상당히 무서워했다. 유씨는 자기 자식은

17) 荊王所愛妾有鄭袖者。荊王新得美女，鄭袖因教之曰“王甚喜人之掩口也。爲近王，必掩口。”美女入見近王，因掩口。王問其故。鄭袖曰“此固言惡王之莫”。及王與鄭袖、美女三人坐，袖因先誡御者曰“王適有言，必亟聽從王言。”美女前近王甚，數掩口。王悻然怒曰“劓之。”御因揄刀而劓美人。

18) 수많은 권력 투쟁이나 가정 분규는 어떻게 보면 성격이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무대와 규모만 다를 뿐 한 남자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쟁탈 대상이 군주였으나 가정에서는 그 역할이 남편으로 대체되었다. 이종텐 지음·홍광훈 옮김, 《이종텐 교수의 중국남녀 옛보기》, 에버리치 홀딩스, 2008, p. 242.

보물처럼 항상 애지중지 했다. 그러나 전처소생인 장유는 보기만 해도 눈에 거슬려서 매일 때리고 욕을 해댔다. 장유는 계모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씀 드릴 수도 없었다. 그야말로 아무데도 의지 할 곳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이 때 그의 나이 15세였다.¹⁹⁾ 〈耳畔有聲〉

강주(江州) 덕화현(德化縣)에 풍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집이 상당히 부유했고, 그의 아내 진씨는 미모가 뛰어났으나 자식은 없었다. 다행히 첩 위씨가 아들 둘을 낳았다. 진씨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자식을 낳지 못했으니, 하루아침에 내 아름다움이 시들어 버려 남편의 사랑이 식으면 정말 어쩐다지?’

진씨는 매번 위씨와 그 자식들을 질투하여 해칠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기회를 잡지 못했다. 어느 날, 풍수는 물건을 사서 사천(四川)으로 장사를 떠나려고 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아내 진씨에게 두 아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진씨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으나 겉으로는 그러겠다고 했다. 어느 새 추석이 되었다. 진씨는 남쪽누각에 잔칫상을 차려 놓고 술을 마시자고 위씨와 그녀의 두 아들을 불렀다. 진씨는 미리 술에 독약을 넣었다. 그녀는 독이 든 술잔을 들어 위씨에게 건네며 부탁의 말을 했다.

“내게는 자식이 없는데, 다행히 자네에게 자식이 있으니 재산은 당연히 자네와 함께 관리할 생각이네. 훗날 내가 늙으면 자네 모자가 좀 보살펴 주게. 이 술 한잔은 뒷날 날 잘 부탁한다는 뜻으로 건네는 것일세.”

위씨는 감히 사양할 수 없어서 술을 마음껏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날 밤, 독이 퍼져서 위씨와 두 아들은 얼굴의 일곱 구멍으로 피를 흘리더니 연달아 저 세상으로 떠났다. 이 때 위씨의 나이 25세였고, 큰 아들은 5세, 작은 아들은 3세였다.²⁰⁾ 〈手牽二子〉

〈耳畔有聲〉에서 전처 정씨와 후처 유씨의 형상은 대조적이다. 덕이 있고 온유

19) 話說開封府城內有一個仕宦人家，姓秦字宗佑，排行第七，家道殷富，娶城東程美之女爲妻。程氏德性溫柔，治家甚賢。生一子名長孺，十數年，程氏遂死，宗佑痛悼不已。……次年，宗佑再娶柳氏爲妻，生一子，名次孺。柳氏本小戶人家出身，性甚狠暴，宗佑頗懼之。柳氏每見己子，則愛惜如寶，見長孺則嫉妒之，日夕打罵。長孺自知不爲繼母所容，又不敢與父得知，以此棲棲無依。時年已十五。

20) 話說江州德化縣有一人，姓馮名叟，家頗饒裕。其妻陳氏，美貌無子。側室衛氏，生有二子。陳氏自思已無所出，誠恐一旦色衰愛弛，每存妒害，無罅可乘。一日，馮叟欲置貨物往四川買賣，臨行吩咐陳氏，善視二子。陳氏假意應允。後至中秋，陳氏於南樓設下一宴，召衛氏及二子同來會飲。陳氏先把毒藥放置酒中，舉杯囑托衛氏曰：“我無所出，幸汝有子，家業我當與你相共，他日年老之時，皆托你母子維持，此一杯酒，預爲我日後意思。”衛氏辭不敢當，於是痛飲盡歡而罷。是夜，藥發，衛氏母子七孔流血，相繼而死。時衛氏年二十五歲，長子五歲，次子三歲。

하며 현명한 전처와는 달리 후처는 모질고 사나운 성격에 전처소생을 항상 못마땅해 하며 남편인 진중우 조차 눈길을 마주치기 어려운 악랄한 아내이자 새엄마의 전형이다. 유씨는 선량하고 나약한 신데렐라와 콩쥐의 사악한 새엄마처럼 전처소생을 구박하는 인물이다. 남편의 부재를 틈 타 당연히 그녀는 차갑고 파괴적이며 타산적인 소유욕, 독점욕, 사악함으로 부정적인 '아니무스' 성향을 잔혹하게 행동으로 옮겼고, 그 결과는 전처소생 타살이라는 사건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녀의 과도한 '아니무스' 성향의 표출로 사건이 발생되고, 남편과 주위사람들은 그 사건에 의문을 품으나 감히 일언반구도 하지 못했다. 유씨와 그녀의 페르소나(Persona)²¹⁾가 동일시된 까닭에 주위에서는 당연히 그녀의 범죄 가능성을 확신했지만, 차마 저항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手牽二子〉에서는 본처 진씨와 첩 위씨와의 갈등양상이 전개되어 있다. 본처 진씨는 미모의 여성이나 자식을 낳지 못하여 가정 내 자신의 위치를 흔들리게 할 경쟁자인 첩을 맞게 되었다. 봉건사회에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현실은 여성들에게 상당히 가혹한 것으로, 가정 내 본인의 위치 뿐 아니라 남편을 빼앗길 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노후에 대한 불안까지 염려해야 하는 심리적 고통을 수반했다. 〈耳畔有聲〉의 유씨와는 달리 진씨는 자아와 불일치하는 페르소나를 소유한 여성이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겉으로는 인자하고 선한 여성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남편이 멀리 장사를 떠나며 첩과 첩 소생 자식들을 당부하자, 그 자리에서 남편의 뜻을 따르며 현처로서의 페르소나를 과감히 보여주어 남편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남편의 부재는 그녀의 파괴적 '아니무스'를 자극하여 잔인한 면모를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반면에 첩 위씨는 봉건사회 내의 전형적인 처첩간의 지위라는 측면에서 선량한 약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자애로움을 가장한 본처 앞에서 전혀 저항할 힘과 방법이 없는 여성으로, 남편의 부재와 동시와 본처의 '아니무스'적 경향

21) 페르소나는 외부 세계가 요구하는 대로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가 아닌 남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까하는 시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를 말한다. 사람에 따라서 본래 자아와 페르소나가 동일시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상반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의 팽창으로 어린 자식들과 생을 마감하게 되는 비운을 맞보았다.

후처 유씨의 전처 소생 자식에 대한 타살과 본처 진씨의 첩과 첩 소생 자식들에 대한 독살 행위는 여성의 부정적 ‘아니무스’의 과도한 표출의 결과이다. 유씨와 진씨는 자신의 권익을 위해 ‘아니무스’의 잔인한 표출로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

어느 날, 종우는 친척을 방문하러 집을 나서더니 며칠 째 돌아오지 않았다. 이때를 틈타서 유씨는 장유를 어두운 방에서 때려죽이고, 집안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병이 생겨 죽었다고 했다. 그리고 성 남문 밖에 시신을 묻었다. 다시 며칠이 지났다. 마침내 종우가 돌아왔다. 유씨는 일부러 통곡하는 척하며 장유가 병으로 죽은 지 며칠 되었고, 성 남문밖에 잘 묻어주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종우는 전처의 부탁이 생각나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슬펐다. 속으로는 장유가 분명 비명횡사했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꼭 참고 말하지 않았다.²²⁾(耳畔有聲)

당시 주위의 친척과 이웃들은 그 내막을 전혀 몰랐다. 진씨는 위씨모자가 갑작스레 병에 걸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을 듣고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진씨는 거짓으로 곡을 하면서 상당히 슬픈 척 했고, 격식을 갖추어 그들을 매장했다.

한편 외지에 있던 풍수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꿈을 꾸었다. 위씨가 두 아들을 데리고 울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는 꿈이었다. 그는 짐을 정리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물건들이 다 팔리지 않아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첩이 한 말에 대해 반신반의하며 근심걱정에 휩싸여 지냈다.²³⁾(手牽二子)

과괴적이고 잔혹한 ‘아니무스’를 지닌 유씨와 진씨의 그녀들만의 완전범죄와 범죄사실 은폐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중국식 추리소설인 《용도공안》의 탐정이

22) 一日，宗佑因出外訪親，連日不回。柳氏遂將長孺在暗室中打死，吩咐家下，但言長孺因暴病身死，遂葬之於城南門外。逾數日，宗佑回家，柳氏故意佯假痛哭，告以長孺病死已數日，今葬在城南門外。宗佑聽得，因思前妻之言，悲不自勝，亦知此子必死於非命，但含忍而不敢言。

23) 當時親鄰大小莫知其故，陳氏乃詐言因暴病而死，聞者無不傷感。陳氏又詐哭甚哀，以禮葬埋。卻說馮叟在外，一日忽得一夢，夢見衛氏引二子泣訴其故，意欲收拾回家，奈因貨物未脫，不能如願，且信且疑，悶悶不悅。

자 사건 판결을 담당하는 포공의 등장이 그녀들의 파괴적 '아니무스'로 인한 범죄 행위를 세상에 공론화 시켰다.

두 작품에서 포공은 중국식 추리소설의 묘미를 보여주는 원혼의 계시와 現夢을 통해 유씨와 진씨의 파괴적 '아니무스'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었다.

《耳畔有聲》에서 포공은 작은 무덤을 지나다가 갑자기 귓가에 들리는 “상공께 고소합니다.”라는 누군가의 속삭임을 듣고, 억울한 사건의 발생을 감지하게 되었다. 포공은 작은 무덤을 파서 시신을 살펴보고, 죽은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 관련인을 구속하여 심문을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 《手牽二子》 역시 원혼의 현몽을 통해 사건의 진상에 다가가고 사건 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3월 어느 날, 포공이 교외로 나가 권농(勸農)을 하러 할 때 멀리 길가에 있는 새로 만들어진 작은 무덤을 보았는데, 그 무덤 위로 지진이 날리고 있었다. 그 곳을 포공이 지나려는데, 갑자기 귓가에서 나지막한 사람소리가 들렸다.

“상공께 고소합니다. 상공께 고소합니다.”

계속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몇 걸음을 걷다보니 또 다시 소리가 들렸다. 그 날 하루 종일 그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리며 따라 다녔다. 권농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다시 그 새로 만들어진 작은 무덤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포공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분명 무덤과 관련된 억울한 사건이 발생했을 것이라 여겼다.

곧 마을의 이장을 불러서 새 무덤은 누구네 것인지 물어보았다. 이장이 아뢰었다. “성안에 사시는 진 나리 님 무덤입죠. 며칠 전에 어린 아들이 죽어서 이곳에 묻었습죠.”

포공은 좌우 아역들에게 이장에게 팽이를 빌려 무덤을 파도록 명령했다. 무덤을 파서 들여다보니 아이의 시신이 있었다. 이리 저리 살펴보고 몸에 많은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²⁴⁾ 《耳畔有聲》

때 마침 포공이 강주에 시찰을 나갔다가 말에서 내려 그곳 관청으로 들어갔다. 포공이 관청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계단 아래에 검은 기운이 돌더니 하늘로 솟구

24) 卻說一日，包公因三月間出郊外勸農，望見道旁有小新墳一座，上有紙錢霏霏。包公過之，忽聞身畔有人低聲曰：“告相公，告相公。”連道數聲。回頭一看，悄不見人。行數步，又復聞其聲，至於終日相隨耳畔不歇。及回來，又經過新墳，聽其愈明。包公細思之，必有冤枉。遂問鄰人裡老：“此一座新墳是誰家葬的？”裡老答道：“是城中秦七官人，近日死了小兒，葬在此間。”包公遂令左右，就與裡老借鋤頭，掘開墳內，將小兒屍身檢驗，果見身上有數傷痕。

쳐 올라서 잠시 동안 하늘의 해를 볼 수 없었다. 신시(申時)가 되어서야 검은 기운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날이 밝지는 않았다.

이 광경을 지켜 본 포공은 억울함을 당한 원귀의 소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날 밤, 아역들이 촛불을 밝혔고, 포공은 피곤하여 탁자에 엎드려 잠을 잤다. 삼경쯤 되었을 때, 홀연 산발을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그 여인은 양 손에 두 아들을 이끌고 소리내어 울면서 관청의 계단아래에 무릎 꿇었다. 포공이 여인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디에 사는 여인인가? 이름이 무엇인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이곳에 왔는가? 자세히 말해 보아라. 내 그대를 위해 억울함을 풀어 주겠노라.”

여인은 울면서 아뢰었다.

“저는 강주에 사는 위씨라고 하옵니다. 지아비 풍수가 사천으로 장사를 하러 떠나자 본부인 진씨가 추석에 술자리를 마련하여 저희 모자를 독살했습니다. 원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다행히도 포공나리께서 이곳에 시찰을 오셔서 이렇게 저희의 사연을 슬피 고하옵니다. 바라옵건대 저희 모자를 불쌍히 여기시어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말을 마친 여인은 한참동안 슬피 울더니 절을 하고 물러났다.²⁵⁾ 〈手牽二子〉

원혼의 계시와 현몽이 포공의 사건 실마리 파악과 해결에 큰 도움을 주어, 위씨와 진씨는 처벌을 받게 되고, 나약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게 되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추리서사물의 정수는 사건의 인과관계를 재구성하면서 범인을 찾아내는데 있다. 이 과정은 흡사 퍼즐 게임에서 퍼즐 조각을 제자리에 하나하나 끼워 넣으며 전체 모양을 완성해 가는 것과도 같다. 공안소설에서 추리의 주체는 서양 추리소설의 추리 주체와는 달리 비현실성이 농후한 초현실적 요소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즉, 꿈, 원혼, 기도, 수수께끼 시 풀이 등의 초월적 양상들이 퍼즐게임의 성공적 종료를 앞당겨 주는

25) 後適值包公按臨其地，下馬升廳，正坐間，忽然階前一道黑氣冲天，須臾不見天日。晡時雖散，仍不大明朗。包公疑必有冤。是夜，左右點起燈燭，包公困倦，隱几而臥。夜至三更，忽見一女子生得儀容美麗，披頭散髮，兩手牽引二子，哭哭啼啼，跪在階下。包公問道：“汝這婦人居住何處？姓什名誰？手牽二子到此，有何冤枉？——道來，我當與你伸雪。”女子泣道：“妾乃江州衛氏母子，因夫馮叟往四川經商，主母陳氏，中秋置酒殺妾母子三人，冤魂不散。幸蒙相公按臨，故特哀告，望乞垂憐，代雪冤苦。”說罷悲鳴不已，移時再拜而退。

것이다. 동양 추리서사물에 흔히 보이는 사건해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초월적이며 초현실적인 요소들은 이야기 전개에 활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동양적 정서를 반영하기도 한다.²⁶⁾ 포공 역시 〈耳畔有聲〉과 〈手牽二子〉의 두 작품에서 원혼의 계시와 현몽이라는 초현실적이고 초월적인 장치로 부정적 '아니무스'의 과도한 표출로 인한 범죄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결국 두 여성 유씨와 진씨는 봉건사회의 '일부다처제'라는 권력적 장치로부터 파생되는 불이익을 제거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그녀들의 잔인하고 사악한 '아니무스'를 드러냄으로써 사회 범죄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두 여성의 이러한 파괴적 '아니무스'로 인한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과도한 욕망의 차원이 아닌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4. 나오며

인간은 여성과 남성으로 대별된다. 여성에게는 여성다움이 존재하며, 남성에게는 남성다움이 존재하여 두 異性의 존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해 왔다. 중국 고대 사회에는 인간을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존재의 합집합임을 인정하지 않고, 주로 남성을 중심으로 인간의 개념을 형성해 왔다.

춘추전국시대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본성을 성찰하여 性惡說, 性善說, 性無善惡說 등의 개념을 제시했다. 물론 이곳에서 언급되는 인간의 본성 역시 남성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거치면서 남성 중심에서 인간을 바라보던 시각은 여성에게 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은 그들만의 독특한 성향을 지녀야 한다, 즉 '여성은 여성답다, 혹은 여성다워야 한다' 그리고 '남성은 남성답다, 혹은 남성다워야 한다' 는 식의 평면적이고 진부한 관점에서 벗어나 그들 내부에 숨겨진 측면을 깊이 고찰하기에 이르렀다. 그

26) 高淑姬, 〈추리서사, 그 冤魂의 現夢을 통한 퍼즐게임 - 한 서린 女性 冤魂의 現夢을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第32輯, 2010년 9월, pp. 216-217.

결과 서양의 정신분석학자들은 인간의 심리분석 작업을 통해 그들만의 정신치료법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1875년 스위스에서 출생한 카를 융은 분석 심리학을 창시한 정신분석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이 세계의 주요 구성원인 남성과 여성에 대해 그들의 복잡 미묘한 심리적 측면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다. 그의 분석심리학 용어 중에 '아니마(Anima)'와 '아니무스(Animus)'가 있다. 이 용어들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분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남성성'만이 존재하고, 여성에게는 '여성성'만이 존재한다고 여겼던 단선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존재하는 남성의 '여성성'과 여성의 '남성성'은 모든 인간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다. 남성에게 존재하는 '아니마'는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표출되며, 여성의 '아니무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것들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경우, 남성과 여성은 그들 특유의 본성과 단점을 초월하여 바람직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발현될 경우는 조화롭지 못하고 파괴적인 결말이 초래된다. 특히 여성의 부정적인 '아니무스' 경향은 더욱 파괴적이며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국공안소설에는 많은 범죄사건과 사회문제가 그려져 있다. 범죄사건과 사회문제는 거의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 욕망에 대한 집착은 결국 살인을 양산해 낸다. 그 범죄사건의 중심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그녀들의 과도한 '아니무스'적 경향의 분출로 잔인한 모습을 보여준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용도공안》의 〈耳畔有聲〉과 〈手牽二子〉에는 여성의 '아니무스'적 경향이 짙게 깔려 있다. 물론 공안소설이 범죄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만큼, 여성들의 '아니무스'는 부정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유씨와 진씨는 가정 내에서 자신들의 확고한 위상 정립과 이익 확보를 위해 결국은 그들 내부의 부정적인 '아니무스' 표출로 일시적이거나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그러나 중국식 추리소설이라 할 수 있는 공안소설의 중심 캐릭터 '판관(사건 해결자)'의 등장으로, 그녀들의 잔인한 행동은 징벌을 받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그녀들의 부정적인 '아니무스' 표출을 단지 개인적·심리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 속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參考文獻》

- (明)佚名編撰, 《龍圖公案》, 群衆出版社, 1999.
T.토도로프지음, 신동욱 옮김, 《산문의 시학》, 문예출판사, 1992.
高淑姬, <추리서사, 그 冤魂의 現夢을 통한 퍼즐게임 - 한 서린 女性 冤魂의 現夢을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第32輯, 2010. 9.
남경태, 《개념어 사전》, 들녘, 2008.
대중문학연구회,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吳存存, 《明清社會性愛風氣》, 人民文學出版社, 2000.
이중텐 지음·홍광훈 옮김, 《이중텐 교수의 중국남녀 옛보기》, 에버리치 홀딩스, 2008.
카를 구스타프 융·A.아페편집/조성기 역, 《카를 융 기억 꿈 사상》, 김영사, 2008.
許文純역해, 《韓非子》, 일신서적출판사, 1994.

《中文提要》

人間包括女性和男性. 女性里面有女性性, 男性里面有男性性., 兩種人間互相調和而共存. 中國古代社會里不肯定人間就是包括女性和男性的共同體. 基本上形成了以男性爲主的人間概念.

春秋戰國時代的思想家省察了人間的本性, 提示了性惡說, 性善說, 性無善惡說等概念. 這裏提示的人間的本性也是以男性爲主的. 一八七五年, 瑞士出生的Carl Gustav Jung是創始分析心理學的有名的精神分析學者. 他的分析心理學用語中有'Anima'和'Animus'

這些用語是對男性和女性的關心·分析的結果. 一般來說, 人們都認爲男性只有男性性, 女性只有女性性. 可是他超越了這樣單線的思考, 對人間本性深刻地省察了.

'Anima'和'Animus'里存在的男性的女性性, 女性的男性性是人人都有的. 男性的'Anima'是肯定的或者否定的被表現了. 女性的'Animus'也是一樣.

中國公案小說描寫了許多犯罪事件和各種各樣的社會問題。這種犯罪事件和社會問題大多數因人間慾望而發生，對慾望的執着就是量產了殺人事件。上場那樣犯罪事件中心的女性都通過過渡性的‘Animus’傾向表現了她們殘忍的面目。本論文考察了公案小說專集《龍圖公案》的〈耳畔有聲〉和〈手牽二子〉里女性的否定的‘Animus’傾向。作品里女性柳氏和陳氏爲了家庭里地位定立・利益獲得表現了否定的‘Animus’。結果，因中國式推理小說‘公案小說’中的最重要角色‘判官’的登場而她們被懲罰了。

關鍵詞：女性, 女性性, Carl Gustav Jung, 分析心理學, Anima, Animus, 《龍圖公案》, 公案小說, 推理小說, 〈耳畔有聲〉, 〈手牽二子〉

이 논문은 2010년 11월 19일에 접수되어 2010년 12월 16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0년 12월 21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